국외연수 보고서

- 연 수 국 : 터키공화국
- 연수기간 : 2011. 2. 20. ~ 2. 28. [7박9일]
- 연수인원 : 16명(의원 11명 / 수행직원 5명)
- 연수목적 : 복지, 환경 등 우수시책 비교시찰

중랑구의회

목 차

제1장. 국외연수 개요

- ▢ 연수배경 ---------- 1
- ▢ 연수목적 ---------- 3
- ▢ 연 수 국 ---------- 3
- ▢ 연수기간 ---------- 3
- ▢ 연수자 명단 ---------- 3
- ▢ 연수경과보고 ---------- 3
- ▢ 연수일정 ---------- 4

제2장. 방문국 현황

- ▢ 터키 개요 ---------- 5
- ▢ 터키 지도 ---------- 7
- ▢ 터키 문화유산 ---------- 8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0

제3장. 연수내용

- ▢ 주요 도시별 견문 내용 ---------- 11
- ▢ 주요 기관 방문 내용 ---------- 30

제4장. 연수후기 및 소감 ---------- 41

제5장. 연수총평 ---------- 45

제6장. 발전을 위한 제안 ---------- 49

국 외 연 수 보 고 서

제1장 국외연수 개요

□ 연수배경

○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의 이점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역사적 배경과 통치이념을 우리나라의 해양과 내륙을 잇는 반도의 지리적 여건과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대한 방안을 찾아봄

○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유적과 이슬람 문화, 옛 것과 새 것,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도시 - 이스탄불의 상반된 문명 견학을 통한 조화로운 상생과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고 동·서양 문화가 융합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터키의 역사를 통해 시대적 소명의식을 깨치고 구민의 복지와 삶의 행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

○ 터키는 재래시장을 통한 물품거래가 전체의 약 50%에 달하고 있음. 500년 전통의 터키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그랜드바자르의 견학을 통해 대형마트의 동네 소규모 상권잠식과 갈수록 침체돼가는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발전방안과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됨

○ 터키의 문화재 발굴, 관리와 보존 정책은 중앙정부의 몫이며 법령도 중앙에서 제정한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 모든 규제가 통제되며 문화재의 개발과 보존을 추구하고 문화재 관리시스템은 유적의 중요도에 따라 점검과 관리를 차등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정책을 통해 고대의 유럽과 아시아의 수많은 유적과 빼어

난 자연환경을 관광 상품화 하는 전략과 주민 및 관광종사원들의 문화관광에 대한 의식수준과 태도 관찰을 통해 안목을 배양하고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건의

○ 의원내각 책임제와 대통령제를 가미한 터키만의 독특한 정치 및 통치제도와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인 정치제도와 비교하여 이점과 장·단점을 생각해보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장을 겸하는 기관통합형 정치제도가 의회와 정부 간의 관계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바람직하고 선진적인 정치제도의 발전을 생각해 봄으로써 원활하고 생산적,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접목하여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됨

○ 사회복지비용의 비약적인 증가와 향후 지속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터키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법과 복지모델의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발전방안과 사회복지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우리 구 복지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거나 건의함

○ 기피시설의 대명사인 장례시설(화장장 등)과 쓰레기, 오·폐수 등 폐기물 처리실태와 공원과 체육, 건강 친화적인 시설의 설치현황과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는 우수 시설의 견문을 통해 우리 구가 건강사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함

○ 1년에 1회에 한하여 자치단체의원에게 국외연수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국제적인 안목과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지구촌의 변화를 감지하고 세계의 이질적인 문화견문을 통해 자기계발과 창의적, 혁신적인 감각을 키우는 기회가 됨

○ 지방의회의원의 높아진 창의성과 안목 및 국제적인 감각은 의정활동을 통해 나타나고 이는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연수목적**

○ 국제적인 안목배양과 자기계발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 수 국 : 터키공화국(Republic of Turkey)**

□ **연수기간 : 2011. 2. 20.(일) ~ 2011. 2. 28.(월)** (7박9일)

□ **연수자 명단**

○ 총 16 : 구의원 11, 사무국장, 수행직원 4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구의장	김 수 자	의 원	최 성 식
행정재경위원장	이 윤 재	의 원	은 승 희
복지건설위원장	서 인 서	의 원	황 판 남
의 원	조 희 종	사무국장	정 태 헌
의 원	홍 성 욱	수행직원	임 성 학
의 원	강 대 호	수행직원	황 수 남
의 원	김 영 숙	수행직원	양 동 식
의 원	송 화 영	수행직원	김 유 순

□ **연수 경과보고**

○ 2010. 10. 15. / 국외연수 실시여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10. 10. 21. ~ 29. / 국외연수 희망지 및 의원일정 의견조사

○ 2010. 12. 7.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

○ 2010. 12. 22. / 방문기관 및 시설 섭외(외교통상부·시도지사협의회)

○ 2011. 2. 8. / 방문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의견조사 및 질의서 송부

○ 2011. 2. 15. / “터키의 역사와 문화의 이해” 교육(이스탄불 문화원장)

○ 2011. 2. 20 ~ 28. / 공무국외연수 실시

○ 2011. 3. 17. / 국외연수보고회 개최 및 홈페이지 게시

□ 연수일정

날짜	도시	교통	시간	일 정 내 용	비고
2.20. (일)	인천 이스탄불	KE955	13:20 18:10	◇인천공항 → 이스탄불	1일
2.21. (월)	이스탄불 앙카라	TK2134 버스	09:00 10:40 12:30 13:50 14:20	◇이스탄불 → 앙카라 ♧한국공원 6.25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 ♧아타튀르크(터키 국부) 기념관 견학 ♧터키 초대 국회 방문 ♧앙카라시청 방문 및 부시장 면담	2일
2.22. (화)	앙카라 카파도키아	버스	07:00 15:00 17:00	◇앙카라 → 카파도키아 ♧노인요양시설 방문, 현황청취 ♧데브란트, 파샤바 계곡 견학	3일
2.23. (수)	카파도키아 콘야	버스	10:00 13:40 15:00	♧괴레메 야외박물관, 우치사르 견학 ♧데린구유(기독교도 은거지) 견학 ◇카파도키아 → 콘야	4일
2.24. (목)	파묵깔레	버스	08:00 15:30	◇콘야 → 파묵깔레 ♧히에라폴리스·석회붕·노천온천 견학	5일
2.25. (금)	파묵깔레 셀축 에페소 이즈미르	버스	08:00 12:20 14:30 15:20 16:30	◇파묵깔레 → 셀축 → 에페소 ♧그리스 전통마을 쉬린제 견학 ♧사도요한의 교회 견학 ♧하드리아누스 신전, 셀수스 도서관, 원형 대극장 등 고대도시 견학 ◇쉬린제 → 이즈미르	6일
2.26. (토)	이즈미르 이스탄불	kk021 버스	08:45 11:00 12:40 15:00 16:30	◇이즈미르 → 이스탄불 ♧히포드럼, 블루모스크 견학 ♧성소피아사원, 아라베탄사라이 견학 ♧보스포러스해협 해상 견학 ♧그랜드바자르 견학	7일
2.27. (일)	이스탄불	버스 유람선 KE956	08:30 13:00 15:00 16:00 19:45	♧이스탄불 폐기물처리시설 방문 현황청취 ♧돌마바흐체 궁전 견학 ♧마르마라해 경매조합·수산시장 방문 ◇공항으로 이동 ◇이스탄불 → 인천공항	8일
2.28. (월)	인천	KE956	12:25	◇인천공항	9일

제2장 방문국 현황

□ 터키의 개요

구분	터키공화국 (Republic of Turkey)
면적	779,452㎢(한반도의 3.5배) - 아나톨리아(아시아) : 755,688㎢(97%) - 트레이스(유럽) : 23,764㎢(3%)
위치	북위 35° - 42° , 동경 25° - 45° 에 위치 - 아시아대륙의 서부에 위치, 유럽대륙의 동남부와 연결 -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와 다다넬즈 해협에 의하여 트레이스 반도와 아나톨리아 반도로 구분 - 북쪽은 흑해, 동쪽은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남쪽은 이라크, 시리아 및 지중해, 서쪽 유럽은 그리스 및 불가리아와 접경
인구	7,256만명(2009년)
언어	터키어(공용어), 쿠르드어, 아랍어
기후	내륙지방은 대륙성 기후이며 해안지방은 해양성 기후 - 지중해 및 에게해 연안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서 여름은 대체로 고온건조하며, 겨울은 온화하고 다습함(18℃~20℃) - 흑해 연안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서 연중 고른 분포의 강우량(연평균 2,00mm)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온의 월 교차가 거의 없음(22℃~24℃) - 북동부 및 아나톨리아 고원지대는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어서 여름에는 고온건조하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림. 1~2월이 가장 추우며, 겨울철 평균기온은 0℃~10℃임 - 봄, 가을이 짧으며 4월, 11월, 12월이 우기에 해당 - 평균고도 : 902m - 평균기온 11.8℃(최저 -24.9℃ 최고 40.0℃) - 평균습도 : 60% - 연평균 강우량 : 367mm - 특기사항 : 건조하고 일교차가 심함

구분	터키공화국 (Republic of Turkey)
민족구성	터키족(90%), 쿠르드족(약 1,000만명), 아랍인 50만, 아르메니아인 5만, 기타 그리스인, 유태인 등
수도	Ankara시(인구 400만명) - 주요도시 : Istanbul, Izmir, Antalya 등
종교	전국민의 99%가 이슬람교도(수니파 다수, 시아파 소수) 그 밖에 기독교, 유태교, 그리스정교 등 - 헌법상 정치와 종교 분리
국경일	10. 29. (터키공화국 선포일)
정부형태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 - 대통령 : Abdullah(압둘라 귤) - 총 리 : Recep Tayyip Erdogan(레젭 타입 에르도안)
의회	단원제(임기 4년, 의석 550석)
주요정당	정의개발당(AKP), 공화인민당(CHP), 민족주의행동당(MHP), 평화민주당(BDP), 민주좌익당(DSP)
GDP	6,195억불 (2009년)
1인당 GDP	8,590불 (2009년)
대외무역	수출 1,021억불 / 수입 1,409억불 (2009년)
경제성장률	1.1.%(2008년) / -6%(2009년)
환율	1US$=1.48TL 터키리라(2010. 5월 현재)
물가상승율	6.5%(2009년)
실업율	14%(2009년)
공휴일	국정 공휴일과 종교 공휴일이 있으며, 국민 다수가 이슬람을 따르고 있으나 정교분리로 금요일 근무, 통·일요일 휴무
국제기구	UN, ILO, FAO, UNESCO, WHO, IFC, IDA, IMF, OECD, UPU, NATO, WTO 등

□ 터키지도

Turkey
N
RUSSIA
Caspian Sea
BULGARIA
Black Sea
GEORGIA
T'bilisi
AZER.
GRE.
Istanbul
Zonguldak
Izmit
Adapazari
Trabzon
ARMENIA
Yerevan
Bursa
40°
Eskişehir
Ankara
Sivas
Erzurum
AZER.
Kütahya
TURKEY
Elâzig
Izmir
Malatya
Diyarbakir
IRAN
Maras
Tarsus
Adana
Antalya
Mersin
IRAQ
CYP.
SYRIA
Mediterranean Sea
Beirut
0 100 200 mi
0 100 200 km
LEB.
40°
© maps.com

▭ ▮ 연수일정 ▬ ▯

사프란볼루
삼순
리제
트라브존
트로이
앙카라
부르사
이즈미르
파묵칼레
콘야
카파도키아
넴루트
반
카라만마라스
우르파
페티예
타수스
하란
카슈
안탈리아
이라크
올림피아
시리아

□ 터키 문화유산 - 9곳

명칭	지정년도	주요내용
카파도키아의 괴레메국립공원과 바위 유적	1985	괴레메(Goreme) 계곡의 침식작용에 의해 조각된 자연 경관과 이를 근거로 바위를 깍아 들어간 신전이 있는 지역으로 비잔틴 문화의 독자성 및 혈거인들의 주거지, 마을, 지하도시 등은 전통적인 인간 주거형태를 나타내주는 유적지
이스탄불 역사지구	1985	흑해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전략적인 지점이자 발칸과 아나톨리아 사이에 위치한 해양교통의 요충지 보스포러스 반도에 위치한 이스탄불은 2000년 동안 종교,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고대 콘스탄틴 경기장을 비롯한 16C 술레이만 모스크 등 많은 고대 유적이 현존하는 최고의 관광지이지만 현재 과도한 인구의 밀집, 환경오염, 무계획적 도시 확장 등으로 이곳에 있는 유적, 유물이 위험에 처해있음
디브리지의 대모스크와 병원	1985	1세기 초 투르크인에 의해 정복당했던 지역이며, 1228~1229년경 에미르 아멧이 지붕에 2개의 돔을 씌운 기도실이 있는 현재의 모스크와 근처의 병원을 건립함. 천장구조의 정교한 기술과 장식조각의 창조성은 이슬람 건축의 백미라 평가함
하츄샤	1986	하츄샤 지역의 고대 유적으로는 히타이트 제국의 초기 수도로 사원, 왕의 침실, 요새 등 당시의 건축과 도시구조를 엿볼 수 있는 고고학적 유적이 현재까지 산재되어 보존됨
넴루트 댁 고고유적	1987	알렉산더 제국 붕괴 후 유프라테스유역과 시리아 북단에 세운 왕국 꼼마진을 통치한 앤티오추스1세(BC 69~31)의 야심찬 헬레니즘 시대의 무덤 건축물

명칭	지정년도	주요내용
히에라폴리스 (파묵깔레)	1988	파묵깔레(Pamukkale)란 터키어로 "솜 궁전"을 의미함. 평원이 바라다보이는 200m 높이의 절벽에 있는 분수와 방해석이 깔린 바다는 상상을 초월한 장관을 연출하며 천연 숲과 폭포 등이 한데 모여 있어 유명함. 히에라폴리스는 B.C 2세기경 아탈리드 왕조의 왕들이 열 공급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이로 인해 목욕탕, 사원 등의 유적이 발달하였음
크산토스-레툰	1988	리키아(Lycia)의 수도였으며 리키아의 전통과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역으로 비석의 명문은 장례예술을 통한 헬레니즘의 영향과 리키아 전통이 혼합된 융합문화를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특히, 비석의 명문은 리키아인의 역사와 인도와 유럽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함
샤프란블루 시	1994	13C부터 20C까지 철도가 생기기 전까지 동서 무역로를 왕래하는 카라반(隊商)들의 중요한 체류지였으며, 1322년에 세워진 모스크, 목욕탕 등 건축물은 오트만 제국의 주요 유물로 도시발달에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수교일자 : 1957. 3. 8.

2. 공 관 장 : 배재현 대사(2009년 4월)

3. 체결협정

- ○ 1949년 8월 : 한국승인
- ○ 1950년 7월 : 터키정부 한국전 파병 결정
- ○ 1957년 3월 :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
- ○ 1972년 4월 : 사증면제협정 체결
- ○ 1974년 8월 : 문화협정 체결
- ○ 1977년 12월 : 통상진흥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 ○ 1979년 10월 : 항공협정
- ○ 1986년 3월 : 2중과세방지협정
- ○ 1994년 6월 : 투자보장협정
- ○ 1997년 12월 : 섬유협정
- ○ 1998년 10월 : 원자력협력협정
- ○ 2003년 4월 : EDCF 기본협정(서명, 미발효)
- ○ 2006년 10월 : 관광협력협정(서명, 미발효)

4. 교역현황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주요교역상품
금액 (백만$)	2,661	434	2,227	▸수출 : 자동차, 무선통신, 철강판 등 ▸수입 : 의류, 자동차부품, 기호식품

5. 교민현황 : 2,527명 (2010. 4월)

제3장 연수내용

□ 주요 도시별 견문 내용

1. 이스탄불(옛 이름은 Constantinople, 고대 이름은 Byzantium)

○ 지 리

-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끼고 위치한 이스탄불은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역사에 걸맞게 아주 자연스럽게 동서양 문화와 상업의 교류지로서 역할을 다하여 왔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두고 동쪽의 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이 되고 서쪽의 유럽지역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된다. 유적지가 모여 있는 곳은 구시가지인 술탄 아흐멧 지역으로 유럽 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의 궁전과 교회가 모두 모여 있다.

- 세계를 지배한 3대강국인 로마, 비잔틴, 오스만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었던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도시 곳곳에 과거 번영의 흔적들이 보존되어 있음으로서 생생한 역사의 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200만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도시로서의 면모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고, 또한 서양과 동양의 절묘한 조화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상반된 신비가 깃들어 있는 도시라고 하겠다.

- 이스탄불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데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이기 때문이다. 보스포러스 해협은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협으로 흑해의 자원들이 서방으로 나가는 경제적 지름길이다.

○ 역 사

- 그리스의 미케네인에 의해 도시를 건설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비잔티움은 후에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통치기간 중에 그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재 명명되었다. 오토만이 이 도시를 정복한 후에는 오스만 제국의 메메드 2세 치하에서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

려졌고 1453년에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되었다가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출범되면서 초대 대통령인 아타튀르크가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의지로 수도를 앙카라로 옮겼고, 콘스탄티노플은 1930년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개칭되었다.

○ 산업 및 도시기반시설

- 터키의 제조업 공장들 가운데 약 1/3을 수용하며, 주요공업으로 섬유·시멘트·유리·가죽제품 제조업과 담배 가공업, 자동차 및 트럭 조립업, 인쇄업, 조선 및 선박수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대규모의 터키은행과 외국보험회사들이 시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해마다 약 2백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어 관광업이 중요한 수입원이다.

- 새로 생긴 문화시설에는 1969년 예술 센터로 개관된 아타튀르크 문화궁전이 있으며, 여러 학술단체와 연구소·박물관·도서관 등도 있다. 터키 최대·최고(最古)의 고등교육기관인 이스탄불대학교가 있으며, 그밖에 이스탄불공과대학교·마르마라대학교·보스포러스대학교·미마르시난대학교·일디즈대학교 등이 있다.

- 성벽으로 둘러싸인 옛 도시(Stamboul) 안에는 비탈이 가파르고 꼭대기가 평평한 7개의 구릉이 있는데, 이곳은 가장 중세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좁은 해협인 골든혼(Golden Horn) 건너편에 자리잡은 베욜루는 이스탄불 시의 현대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구역으로, 극장과 수많은 터키 정부청사들이 들어서 있다.

○ 이스탄불의 관광명소

- 이스탄불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지역과 유럽지역으로 나누어지며 다시 유럽지역은 Golden Horn 을 사이로 하여 구시가와 신시가지로 나누어진다. Golden Horn의 남쪽 보스포르스 해협과 마르마라해를 끼고 있는 구시가지는 과거 비잔틴시대인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수도로 지정된 이래 오스만터키가 1923년 터키공화국의 수립으로 몰락할 때까지 17세기 동안 수도로 사용되었던 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깊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빈번한 반란과 지진, 화재 등으로 대부분의 유적들이 파괴되고 일부만 현재 남아있는데 이스탄불의 최대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 **이스탄불 구시가지의 역사적 가치**

- 커다란 역사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도시로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수많은 유물들이 남아 있다. 보존이 잘 된 기념물들로는 예레브스탄 궁전과 콘스탄티누스 궁전이 꼽힌다. 고대에 세워진 많은 그리스도교 교회의 상당수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더러는 모스크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들 중 가장 큰 것은 성 소피아사원으로서 1453년 모스크로 바뀌었다가 1935년에 박물관이 되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톱카프 궁전에는 문서·도기·갑옷·직물 등 터키의 중요한 수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 **콘스탄티노플 성벽(일명 로마 성벽)**

- 난공불락의 방비시설이던 이스탄불 성곽은 마르마라해에서 골든혼까지 약 7㎞ 가량 이어져 있다. 최근 다시 복원된 이 성곽은 테오도시우스 2세가 재임하던 5세기에 지어졌으며, 이 성곽과 인근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 **블루모스크 : Sultanahmet Camii**

- 오스만 시대에 지어진 직경이 27.5m, 높이가 43m에 다다르는 술탄아흐멧 모스크는 규모면에서 터키 최대의 것으로, 맞은편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대한 이슬람 세력의 우위를 상징하기 위해 그 양식을 모방, 발전시켜 건축한 독특한 형상의 회교사원이다. 그 내부의 벽과 기둥이 푸른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돔의 200 개를 넘는 조그만 창에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장식되어 있어 아름다운 햇살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보스포러스 해협 : BOSPHORUS STRAITS**

- 이스탄불을 가르며 흐르는 보스포러스(bosphorus) 해협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강을 바라보게 하는 느낌을 준다. 만약에 이스탄불에 대해 전혀 지

식이 없다면 강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강물처럼 흐르는 바다 그것이 바로 보스포러스다. 이스탄불하면 어떤 사람은 성소피아(Haghia Sophia) 교회가, 아니면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가, 또 다른 사람은 블루모스크(Blue Mosque) 또는 톱카프(Topkapi) 궁전이 연상될 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바로 강물같은 바다 보스포러스 해협이다.

- 이 해협은 너무도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가른다는 의미와 흑해와 마르마라 바다 나아가 에게해 지중해와 연결해준다는 지리적인 설명 이외에도 이 해협을 넘나들었을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곳이 바로 보스포러스다.

- 보스포러스 해협은 흑해 쪽에서 마르마라해 쪽으로 흐른다. 방향이 바뀌지 않고 항상 이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강물 같다는 느낌을 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바다가 흐르는 이유는 흑해가 지중해나 에게해 보다도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속은 거꾸로 마르마라해 쪽에서 흑해쪽으로 흐르는데 그 이유는 흑해의 염도가 지중해나 에게해 보다도 덜하기 때문이다. 보스포러스라는 이름은 바로 소가 건넌 해협이라는 뜻이다. 제우스의 애인 이오가 소로 변해서 헤라의 벌들을 피해서 바다로 뛰어든 곳이라는 뜻이다. 터키말로 보스포러스는 보아즈라고 불리는데 이는 목구멍, 즉 해협이라는 뜻이다.

- 보스포러스를 여행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10시 반에 에민외뉴(Eminonu)에서 출발하는 정기선을 타는 것이 제일 손쉽고 경제적이다. 배가 출발하는 바다는 바로 골든혼이다. 주변에는 갈라타(Galata) 다리, 갈라타 탑, 예니 모스크, 톱카프 궁전 등이 한눈에 보인다. 제일 먼저 돌마바gm체 사라이(Dolmabahce Saray:궁전)가 눈에 띄인다. 술탄 압둘메지트가 크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은 궁전, 오스만제국의 온갖 영욕이 교차한 곳, 터키의 국부 아타튀르크가 눈을 감은 곳, 그래서 이 돌마바gm체는 지금도 문화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국회 소속으로 되어있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샹들리에 등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너무도 아름다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돌마바흐체와 닮은 모양의 바로크양식의 츠라안 사라이는 지금은 호텔로 쓰이고 있다.

-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는 두 개가 있다. 그중에서 보스포러스 다리는 먼저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서도 앞서 있다. 바다 수심이 워낙 깊어서(평균 60m) 현수교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 보스포러스 다리의 아시아 쪽에는 베이레르베이 궁전이 있다. 흔히 여름 별궁이라고 하는데, 술탄 압둘 아지즈와 나폴레옹의 부인간의 유명한 로맨스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가다보면 정말 아름다운 유럽풍의 집들을 많이 볼 수 가 있다. 터키말로 얄르라고 불리는 이 집들은 보스포러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곳있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터키 최대 부호와 유명인들이 사는 집들. 가끔 고급레스토랑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갈라타사라이 축구팀에서 운영하는 갈라타섬도 흥밋거리 중에 하나이다.

- 배가 파티술탄 메르멧(Fatih Sultan Mehmet) 다리에 도착을 하면 유럽 쪽으로 웅장한 중세 성이 등장한다. 바로 루멜리 성이다. 1452년,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기 1년 전에 메흐멧이 건설한 이 성은 로마땅에 있는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성에서는 한 여름철에 시원한 바닷가 옆에 자리잡은 루멜리 성에서 벌어지는 콘서트는 이스탄불인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낭만적이 행사이다.

○ **히포드럼 : HIPPODROME, 마차경기장**

- 본래 이곳은 196년 로마의 황제 세비루스(Severus)에 의해 지어진 검투경기장이었는데, 4세기 무렵 비잔틴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검투 경기는 금지되고 대신 말이 끄는 마차 경기장으로 바뀌었다. 10만명 정도 수용이 가능했다고 하는 이곳은 경마장으로 이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왕위 계승을 놓고 벌어진 수많은 전쟁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 13세기 초 십자군의 침입으로 이 광장에서 비잔틴군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는데 대부분의 광장 내 유적이 이때 파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곳에는 아주 귀중한 세 개의 기념비가 잘 보존되어 있다.

- "디킬리타스(Dikilitas)"라고 불리는 이집트 오벨리스크는 원래 기원전 1550년에 메소포타미아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헌사한 사원에 세워졌었던 두 개의 오벨리스크 중 하나로 당시 왕족들의 일상을 양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콘스탄티누스의 기둥이라고 알려진 "오르메 수툰(Orme Sutun)", 아폴로 신전에서 가져온, 세 마리의 뱀이 서로 뒤엉켜 직경 3미터의 황금 그릇을 받치고 있는 형상의 셀팬타인 기둥(Serpentine)이 있다.

○ **톱카프궁전 : Topkapi Palace Museum**

- 보스포러스 해협의 높고 평평한 곳에 위치한 7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톱카프 궁전은 1453년, 오토만 제국의 술탄인 메흐멧이 이스탄불을 차지하게 되면서 처음 건설되어 그 후 4세기 동안 꾸준히 그 규모를 확장시켜 나갔다. 그 결과 오늘날 이 곳은 15세기-19세기 초까지의 오스만 건축양식의 변화된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톱카프 궁전은 원래 오스만 제국 대대로 술탄 군왕들이 거처했던 성으로 한때 이곳에는 술탄과 그 가족 외에도 5만명이 넘는 시중들과 군사, 관료들이 거주했었다고 한다.

- 옛날 요리를 만들었던 곳은 지금은 도자기 박물관이 되었고 보물고에는 술탄 군왕들이 사용했던 옥좌, 면류관, 무기, 생활용구, 왕비나 여자들이 사용했던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으며 터키 각지에서 미녀를 모집했던 할무, 신관(후궁의 시중을 드는 남자)의 방도 보존되어 있어 그 흥미를 더한다.

○ **돌마바흐체궁전 : Dolmabahce Palace**

- 궁전으로 19 세기 구시가지가 쇠락해가는 와중에 국운을 부응시키기 위해 제2의 궁전으로 건축된 것인데 그 호화로움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지만 당시로서는 지나치게 사치로 예산을 낭비하여 재정 파탄으로 멸망에 이르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궁전은 터키공화국의 건설자인 아타튀르크 대통령이 1938년 집무 중 사망한 이후로는 박물관으로 개장하고 있다.

○ 지하 저수지 : Yerebatan Saranzi

-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로마시대의 유일한 유물로 코린트와 이오니아식 원형기둥이 일렬로 도열해 있는 지하 물 저장고의 규모는 336개에 달하는 돌기둥(높이 8m)으로 지탱되고 있는 길이 140m, 폭 70m으로 전체 물 저장규모는 7만톤에 이른다.

- 비잔틴 시대부터 외적의 침입 등으로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의 옛이름)이 포위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북쪽으로 20여 ㎞ 떨어진 베오그라드 숲에서 물을 끌어다 철마다 저장해놓던 곳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06년부터 33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건설하였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현재와 같은 규모로 증축한 것이다. 또한, 오스만투르크가 이스탄불을 점령한 후에도 무려 60년 동안이나 그 비밀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 1985년 대대적인 수리와 보수공사를 마친 후 1987년 9월 9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현재는 관광객을 위해 물을 저장하지는 않으나 바닥에는 계속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나무 받침대를 이용하여 관광객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져 신비스러움을 자아내기도 한다. 007 시리즈(러시아로부터 사랑을 담고)의 촬영에 배경이 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 아야소피아-성소피아 : Aya Sophia Museum

- 성 소피아 성당은 현재 성 소피아 박물관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은 최초에는 성당이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규모면에서도 세계 최대를 자랑하던 성 소피아 성당은 오늘날까지도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 비잔틴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공인하고 이곳에 거하기로 정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새로운 도시의 큰 사원'으로 325년 창건했던 성 소피아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명에 따라 532년~537년에 다시 크게 개축되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성 소피아 사원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한 이 곳은 회교사원, 즉 모스크로 그 용도가 바뀌

면서 성당을 둘러싸는 미나레트가 세워지고, 성당안벽은 회칠로 덮이고 그 위에 이슬람교 코란의 금문자와 문양들로 채워졌다. 회칠 속으로 성모마리아의 모자이크는 모두 사라졌다.

- 1934년 성 소피아 박물관이란 이름으로 정식 명칭을 바꾸면서 복원작업이 진행되어 두꺼운 회칠이 벗겨지면서 성모마리아를 비롯한 비잔틴시대의 화려한 흔적들이 드러났다. 성 소피아 성당의 중앙에 서면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공존하는 기묘한 장면이 연출되는 역사적인 장소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 본당의 넓이는 75m X 70m로 7,570평방미터에 달하고 천장높이는 55.6m, 돔의 지름은 33m에 달하여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높이이며 40개의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구조이다.

○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R)

- 비잔틴 시대부터 현재 그랜드 바자르가 있는 장소는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후 터키가 이스탄불을 장악하게 되면서 1455-1461년에 걸쳐 그 곳에는 도시의 경제생활을 부강하게 만들 목적으로 두 개의 주 아케이드가 만들어졌다. 이후 사람들은 활발한 상업활동을 위한 더 많은 장소를 필요로 하였고 그 결과 주 아케이드의 바깥부분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

- 오스만 시대를 거치면서 지진, 화재 등으로 여러 차례 소실되었던 이 곳은 몇 번에 걸친 복구 끝에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지붕으로 덮힌 시장이라는 뜻의 ‘카팔르 차르쉬(Kapall Carsl)라고도 불리는 이 대형시장은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골목에 18개의 출입구와 4천개 이상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으며, 세계의 가장 큰 바자르 중의 하나로 터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토요일은 일찍 문을 닫으며 일요일과 종교적 휴일에는 폐점한다.

2. 카파도키아(Cappadocia)

○ 지 리

-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에서 남쪽으로 30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갖갖이 버섯 모양의 기암괴석들이 드넓은 계곡지대에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물론 이 곳에서는 터키의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북적거리는 시장이나 양파모양의 사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카파도키아의 참 매력은 좀 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 원뿔을 엎어 놓은 듯한 용암층 바위 속에 이 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삶의 터전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이다.

-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지형은 이 지역 거주민에게 더없는 편의를 제공하였다. 지형을 이루고 있는 응회암은 암석이라고는 하나 쉽게 깎이는 탓에 거주공간이 좁다 생각될 경우 주변의 돌을 더 파내기만 하면 되었을 뿐 아니라 돌로 만든 집은 여름에는 더위로부터, 그리고 겨울에는 한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였기 때문이다.

○ 역 사

- 수백만년전, 활화산이었던 에르지에스산(3917m) 등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인해 형성된 이곳의 지형은 오랜 세월을 걸쳐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켜 부드럽고 쉽게 깎이는 습성을 지닌 응회암지대로 바뀌게 되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이들의 거주 공간은 덥고 건조한 기후를 피할 수 있음과 동시에 데린구유라고 불리는 지하도시와 마찬가지로 쉽게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종교탄압시기에 기독교인들의 훌륭한 피난처가 되었다. 이러한 응회암 집의 입구는 지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있는 사다리나 밧줄을 통해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

- 지하도시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버섯집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 이외에도 교회와 지성소, 사원들을 만들어냈다. 오늘날까지도 카파도키아에는 6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보존되어 있고, 이중 최고 오래된 것은 7세기경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교회를 장식하고 있는 회화들

은 비잔틴 예술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세계유산이다.

○ **괴레메 박물관 : Goreme**

-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괴레메(Goreme) 지형의 수도원과 암굴 교회 등을 총칭하는 야외박물관. 1세기경,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기독교인들은 이곳에 암굴 교회를 지어 신앙생활을 했다. 이후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뒤 교회가 타락하자 신자들은 괴레메에 수도원을 짓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 과거 총 365개의 교회는 현재는 약 30개의 암굴 교회만이 개방돼 있다. 이곳의 교회는 긴 세월 동안 차례차례 지어져, 이콘(성화그림)의 변천사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뱀이 있는(일란리) 교회’, ‘사과(엘마리) 교회’, ‘혁대(토칼리) 교회’ 등의 독특한 교회명의 어원은 8~9세기 성상 파괴 시대를 피하기 위해 사슴, 포도, 물고기 등 은유적인 이콘을 이용해 성서를 표현하려는 노력이었다.

- 괴레메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괴레메 야외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이 곳 주차장의 왼쪽에 있는 것이 Tokali Kilise(BUCKLE 교회)로, 특히 프레스코화로 유명한 곳이다. 처음에는 이곳 건물들의 겉모양이 약간 이상하다 생각될지도 모르나 워낙에 부식이 잘 되는 특성을 지닌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탓에 서서히 진행되는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보호막을 입힐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한다면 쉽게 수긍이 될 것이다.

○ **토칼리 교회 : Tokali Kilise**

- 괴레메 안에 있는 토칼리 교회는 카파도키아에 있는 수많은 암굴교회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10c에 지어진 근처의 다른 교회들과는 양식과 수준이 다르다. 이 교회는 올드 교회라 불리는 초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양식을 따르고 있지 않다.

- 토칼리 교회는 왼쪽에 작은 예배당에 있고 마루 밑에 지하실이 있는 구조이다. 이 교회에서 가장 눈에 뛰는 것은 교회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푸른 톤의 프레스코화이다. 이 푸른 프레스코화는 카파도키아에서는 매우 희귀한 것

이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이 프레스코화를 그리기 위해서 그 당시 이 곳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외부에서 염료를 들여와 이 프레스코화를 그렸을 것이다. 그 만큼 이 교회는 카파도키아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 특별한 교회였다는 것이다.

○ **우치사르 : Uchisar**

- 우치사르(Uchisar)는 카파도키아의 기암괴석 지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계곡이다. 과거 사람들이 거주하던 동굴은 아직까지 현지 사람들의 집으로, 식당으로, 기념품 가게로 활용되고 있다. 카파도키아의 상징 격인 ‘버섯 바위’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명소다. 풍화와 침식 장용으로 갖가지 독특한 형상을 갖게 된 이곳의 바위들은 각각 낙타, 오리(혹자는 나폴레옹의 모자라고도 한다) 등 인간의 눈으로 해석된 이름으로 재탄생해 여행자들의 포토 포인트로 사랑받고 있다.

- 최근에는 성채에서 지하 100m 이르는 곳에 위치한 비밀터널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전시에 대비하여 물을 공급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특별한 장소를 이용한 호텔과 레스토랑들이 들어서고 있어 찾는 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

○ **데린구유 지하도시**

- ‘깊은 우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데린구유(Derinkuyu)는 수천년의 역사에 비해 비교적 늦게 세상의 조명을 받았다. 그렇기에 그 신비로움과 비밀스러움은 극에 달한다. 4,000년 전 히타이트 시대 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이곳은 최대 3만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총 20층에 달하는 대규모의 지하도시로 현재는 8층까지 개방한다. 수용인원이 많아지면서 지하 동굴은 더욱 넓고 깊숙해졌고 그 지형도 점점 미로처럼 복잡해졌다.

- 지하동굴 안에는 주거지로 사용하던 방이나, 부엌, 교회, 곡물저장소, 동물 사육장, 포도주 저장실, 성찬 및 세례식을 행한 장소, 신학교, 지하매장지 등 완전한 도시의 기능을 갖추었다. 게다가 긴급 상황 시 다른 지하 도시로 피신할 수 있는 지하터널이 9km나 이어져 있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보면서도 그 규모와 존재 자체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인 데린구유 지하도시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1965년에 처음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으나 실제로 관람할 수 있는 구역은 총 면적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미로처럼 얽혀있는 좁다란 통로 곳곳은 무너져 내린 곳도 많지만 놀랍게도 내부의 환기시설은 아직도 잘 작동하고 있다.

3. 파묵깔레(Pamukkale)

○ 역 사

- 터키 제3의 도시 이즈미르(Izmir)를 관통해 동남부 내륙으로 들어온 버스는 마치 ‘폐허’를 방불케 하는 바위 파편 속을 가로지른다. 이 무수한 바위들은 고대 유적지 히에라폴리스(Hierapolis)의 부분인 약 2,000개의 석관들이다. 히에라폴리스는 석회 언덕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다. `성스러운 도시`를 뜻하는 히에라폴리스는 로마 시대부터 비잔틴 시대까지 번성했으나 셀주크 투르크에 정복당했고, 14세기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폐허가 됐다.

- 형태조차도 온전치 못한 히에라폴리스의 바위덩이들을 보니 비록 신상의 목이 댕강 잘려 나가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긴 했지만 ‘에페소’의 보존 상태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깨닫는다. 하지만 히에라폴리스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점차 고대 도시의 안으로 들어갈수록 새하얀 눈이 마치 성벽을 이룬 듯한 기이한 지층에 다다른다. 이곳은 이스탄불, 카파도키아와 더불어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파묵칼레(Pamukkale)’ 중 ‘파묵’은 ‘목화’, ‘칼레’는 ‘성’이란 뜻이다. 목면의 눈을 닮았다고도 하고, 그 색깔이 목화색 같다고도 한다.

- 예전에는 이 파묵칼레의 이곳저곳에 수영복을 입고 온천욕을 하러 온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고 한다. 온천수의 온도는 섭씨 35도, 부드러운 크림색의 석회석 위를 졸졸졸 흐르는 물을 만나면 수많은 여행자가 그러하듯 바쁘게 양말을 벗어 제치고 온천수에 발을 담근다. 하지만 지금은 파묵칼레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정해진 장소만을 개방한다. 마음 놓고 온천욕을 즐기려면 온

천욕 수영장이나 온천시설을 갖춘 호텔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파묵칼레의 온천수는 심장병, 순환기 질병, 고혈압, 류머티스, 눈과 피부질병 등에 효능이 있다. 클레오파트라를 비롯해 역대 로마 황제와 귀족들이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 찾았다니 오랜 세월 동안 그 명성만은 꾸준한 것으로 보인다.

○ **파묵칼레의 역사적 가치**

- 파묵칼레는 목화솜으로 이루어진 성이란 뜻으로 석회층으로 인해 만들어진 환상적인 경관과 고대도시 히에라폴리스의 풍부한 볼거리가 절묘하게 조합된 곳으로 온통 눈이 내린 것 같이 새하얀 모습이다. 칼슘 성분의 온천수가 흘러내리면서 층층이 바위를 지금의 하얀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다. 게다가 이 온천수는 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역사적으로도 치유와 휴양을 위해 많은 위인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관광객과 지나친 개발로 온천수가 줄어들어 터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계획성을 갖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지역 이외에도 곳곳에 고대 유적들이 들어서 있어 원형극장이나 신전 등 당시의 건축물도 구경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파묵칼레의 석회층은 자연이 만들어 낸 경이로운 산물로, 대지 상부에서 흘러 내려온 석회 성분을 포함한 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정체를 만들고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쌓여져서 현재의 광활하고 희귀한 경관을 만들어 낸 것이다. 딱딱해진 광활한 석회층의 패인 곳에 상부쪽에서 흘러내려온 온천수가 담겨 야외 온천을 만들기도 한다.

-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파묵깔레 석회층은 그 광활함에서 놀라고, 크림색의 종유석과 같은 신기한 모습도 발견된다. 멀리서 파묵깔레 석회층을 바라보면 목면을 뭉쳐놓은 듯 보인다. '파묵깔레'라는 지명이 터키어로 '목면의 성'의 뜻을 가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히에라폴리스 : Hierapolis**

- 히에라폴리스는 기원전 190년에 페르가몬의 왕조였던 유메네스 2세에 의해 처음 세워져 로마 시대의 온천지로서 2,3세기에 가장 번영했던 고대 도

시다. 기원전 130년에 이곳을 정복한 로마인은 이 도시를 ‘성스러운 도시(히에라폴리스)’ 라고 불렀다. 그리스어 ‘히에로스’ 는 신성함을 뜻한다. 히에라 폴리스의 유적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다. 이에 아래의 코스를 추천한다.

- 번화한 거리를 구경한 후 팔각형의 필립사도의 기념교회를 보고 야외 원형극장으로 가서 아폴로의 부조를 감상하는 것이다. 아폴로 신전 옆에는 '신성한 장소'가 있다. 이곳에서는 지면에 생긴 깊은 구멍으로부터 유독한 가스가 분출되고 있는데 성직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겠지만 자신들은 괜찮다고 믿고 있었다. 이 내용은 '신성한 장소'의 옆에 있는 분수에 기록되어 있다.

- 이를 본 다음에 파실리카로 향해 기둥들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는 길을 통해서 비잔틴 시대와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기념문을 지나 서쪽에 위치한 로마식 목욕탕으로 나와 마지막으로 공동묘지를 보면 된다. 이 공동묘지는 2km에 달하며 이곳에서는 특징적인 몇몇의 묘석 모양을 볼 수 있으며 아나톨리아 전 지역에서도 가장 보존상태가 좋은 공동묘지이다.

○ **야외 원형 극장 : Roman Theatre**

- 히에라폴리스(Hierapolis)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 중의 하나로 만 오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야외 원형극장이다.
  A.D. 2세기 로마의 속주로 있을 당시 지어진 것으로 후에 신으로 신격화되는 하드리아누스(Hadrianus) 황제 때 지어졌으며 A.D. 3세기에 개축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원형이 비교적 잘 보전 되어 있으며 원형극장 중앙의 아폴로 조각이 아름답다.

○ **노천온천 : HOT SPRING & SPAS**

- 파묵칼레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파묵칼레의 노천온천은 수천년 동안 깊은 지하수에서 미네랄워터를 쏟아내었다. 이 지하 온천수들이 쏟아져 나와 거대한 원형의 욕탕을 형성하였고, 희고 풍부한 미네랄 내용물들이 석회질 바위와 융화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이

곳은 예로부터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졌으며, 근처에 순례객들을 위해 히에라폴리스가 세워졌다. 이 온천에 기적을 바라는 순례객들은 아픈 몸을 담그고 치료를 받곤 하였다.

- 히에라폴리스가 있는 파묵칼레는 온천지대로 예전부터 위장병과 신경통, 피부병 등에 좋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히에라폴리스의 동부에 있는 이 목욕탕은 로마시대에는 원로원 의원들도 자주 찾을 정도였다 한다. 현재 복원되어 히에라폴리스의 유물들을 전시하는 고고학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4. 에페소(Pamukkale)

○ 에페소의 유래

- 한국에서 흔히 알려진 이름은 에베소. 옛날 이름은 에페수스(Efesus). 한국에서는 기독교 신자들(개신교)에 의해서 흔히 에베소라고 부른다. 옛날에 가장 큰 도시라 하면 바로 터키 땅의 안타키아(Antakya)를 가리켰다. 2000년 전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를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라 했다. 그 다음으로 큰 도시라 하면 바로 에페스이며, 당시의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라고 하니 정말 적지 않은 수였다.

- 에페스는 당시의 아시아라고 불리던 지역으로 지금의 소아시아의 수도였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수년간 기독교를 전파했던 곳, 사도 요한이 살다가 죽은 곳,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살던 곳이다.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에페스이다. 또,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의 하나인 아르테미스(Artemis) 신전이 있던 곳으로 아르테미스 여신과 신흥 종교 기독교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던 장소이기도 했다.

- 흥미 있는 것은 에페스는 대대로 여신을 섬겼다는 것이다. 아르테미스 여신 이전에는 흔히 대모신이라 불렸던 키벨레(Cybele) 여신을 섬겼고, 키벨레의 조금 발전된 양상인 아르테미스가 그 뒤를 이었고, 유일신 사상에 의해 토속 신앙이 패배하고 나서는 성모 마리아가 신으로서는 아니지만 여성 우월주의를 이끌어갔다. 또한 전설에 의하면 에페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

년 전에 아마존 여인족(아마존 여인족은 아마존 강에 살지 않고, 흑해에 살았음)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 역사적 가치

- 전 세계에 있는 고대 도시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좋으면서, 규모가 제일 큰 것은 당연히 에페스일 것이다. 그 이유는 에페스가 당시의 4대 도시 중 하나였으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터키인들이 천년 전에 이 땅에 들어 왔을 때 에페스는 이미 버려진 도시였다. 그 이유는 날라 온 토사에 의해 멘데레스(Menderes)강의 항구의 바닥이 메워져 항구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이 에페스를 떠났기 때문이다.

- 아주 규모가 큰 목욕탕들, 그 규모로 인해 흔히들 원형극장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실내극장 오데움(Odeum), 로마 트라이안 황제의 분수, 하드리안 황제의 신전, 공공 화장실, 도미티우스 황제의 신전, 세계에서 3번째로 컸던 도서관, 아고라(Agora · 시장), 김나지움(Gymnasium · 체육관), 스타디움(주로 육상 경기를 위해 사용됨), 24,000명 수용 능력의 원형극장(정확히 반원형 극장), 그리고 종교회의가 열렸던 성모 마리아 교회. 모든 것이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 어떤 사람은 창녀촌을 광고하는 거리 광고판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쩌렁 쩌렁 울려 퍼졌을 원형극장에 앉아서 사도 바울을 상상할 것이고, 터키를 대표하는 건물인 셀수스 도서관의 앞에서는 “아! 바로 이 건물이구나” 하고 감탄사를 연발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도 부르는 이 건물은 터키 관광포스터의 간판스타이다.

- 터키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고대도시이며 유적지인 에페소는 매우 광활하며 보존이 매우 잘된 곳이다. 게다가 지중해지역에서 가장 고전적이며 활기 찬 도시이다. 에베소는 그리스제국 시대 때 가장 문화가 번성했던 이오니아 지방이었으며 로마제국시대에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이오니아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며 이곳은 풍요와 아름다움의 도시로서 다시 재평가되어지고 있다.

- 에페소는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 도시 전체에 유물이 산재해 있으며, 여러 유적이 발굴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도시의 기원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역사적으로 많은 민족과 문화가 이곳을 지나갔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유적을 볼 수 있는 유적 도시가 되었다. 현재의 에페소는 역사 유적과 건축, 기독교 성지순례를 하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에게해의 한가로움과 지중해의 여유로움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지다. 이스탄불이나 앙카라등 대도시에서 멀어 여행하기 쉽지는 않지만 도시 곳곳에 산재한 유적들과 한적함으로 점점 더 많은 여행객이 찾고 있다.

○ **아르테미스 신전**

-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 신전은 현재 발굴된 가장 오래된 건물을 기준으로 볼 때 BC 3세기경 세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문헌에 의하면 아르테미스 신전은 BC 6세기 중엽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 때 지어지기 시작해서 120년 동안 지어졌다 한다. 에페소의 풍부한 재정능력에 의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이상의 규모로 장대하고 화려하게 건축되었는데 바닥면의 넓이가 가로 130M, 세로 70M, 높이는 18M로 기둥은 무려 127개였다. 이오니아식으로 건축된 이 건물은 BC 356년에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했던 헤로스투스라는 사람에 의해 화재로 소실 되었다. 하지만 신전은 바로 재건에 들어갔고 에페소인들은 신전의 복구에 최선을 다해 기둥이 10M에 불과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8M나 높은 18M의 하얀색 최고급 대리석을 사용한 기둥을 127개나 세웠다. 또한 사방으로 계단을 만들었다.

- BC 250년 완성된 아르테미스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량 컸으며 전세계에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널리 알려졌다. 에페소는 신전으로 인한 특수를 누리며 더욱 번영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에페소의 영화도 AD 3세기경 동고트인들의 침입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동고트인들은 신전을 모두 불태우고 파괴하였다. 이에 아르테미스 신전은 대파되었고 파괴된 신전에서 대리석을 가져가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 신전은 완벽한 폐허로 변하였다. 들어가는 입구 아치위에 새겨진 인물의 모습은 첫번째 문의 아치위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여신 테티스가 두번째 문의 아치위엔 마찬가

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모습이 부조되어 있다.

○ 하드리아누스(Hadrianus) 신전

- 이 신전은 에페소 유적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적이다. 최근에 복원된 이 신전은 신전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돌 담 위에 신과 여신들의 부조가 가득하며 4명의 로마 황제 Diocletianus, Maximianus, Galerius, Chlorus의 상이 꼼꼼이 들어차 있다. 또한 신전 전면의 4개의 기둥 중 2개의 기둥을 잇는 아치는 에페수스 유적지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D 117~138년 사이에 로마제국의 황제로 있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오현제 중 하나로 추앙 받는 현황이었다. 선황의 조카였던 하드리아누스는 선황이었던 트라야누스 황제의 양자로 입적해 즉위한 황제였다. 속주들의 안보와 육성에 힘썼으며 국가의 내실을 다지는 행정, 관료, 군사 제도 등 제국의 기초가 되는 제도들을 다듬고 혁신했으며 학문과 예술 등의 학술적인 면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 또한 선황처럼 양자를 들여 자신의 양자이자 후에 황제가 되는 안토니누스피우스 황제에 의해 신으로 추앙받게 된다. 하드리아누스 신전은 도미티안 신전 이후 두번째로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다. A.D 138년에 지어진 이 신전은 에페소스 시민들에 의해 지어져 로마의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바쳐졌다

○ 아카디우스 도로

- 헬레니즘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이 길은 아카디우스 황제(395-408 AD.) 시대에 복구되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총 길이 530미터, 폭 11미터에 달하는 이 길을 따라 값비싼 물건을 파는 상점들과 화랑들이 위치해 있었다고 전해진다. 도로의 양쪽에는 기둥으로 이어진 회랑이 있는데 그 중간부에는 서기 6세기경 만들어진 동상들이 세워져 있다. 이 도로는 항구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도로"라고도 불린다. 원형 대극장에서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쪽으로 대로가 뻗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길이 바로 고대 에페소 항구에서 야외 원형극장까지 뻗어 있었던 아카디우스 도로이다.

○ **대원형극장 : Efes Theatre**

-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쪽에 위치하는 벽으로 둘러싸인 대극장은 예술역사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며 에페소 시대에서 오늘날까지 가장 잘 보존된 건물 중의 하나이다. 3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단은 네로황제에 의해 1세기에 만들어진 기둥, 조각들 그리고 부조들로 장식되어 있다. 제3단은 셉티무스 세베니우스에 의해 2세기 말에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황제 클라우디우스(40-54년)와 황제 트라야누스(98-117년)에 의해 개조되었다. 극장은 2만 5,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3단의 반원형의 관람석들은 각 단마다 22열로 구성되었으며, 극장의 직경은 50미터이며 극장의 위에 있는 크레테스 거리로 통한다.

○ **셀수스 도서관 : Celsus Library**

- 에페소 유적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 중 하나로 손꼽히는 셀수스 도서관은 에페소 유적 가운데 전면이 원형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에는 얼마나 화려했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여러 차례 많이 훼손되었으나 최근에 재건되었고 높은 초석 위에 세워진 이 건축물은 넓은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

- 셀수스 도서관은 서기 135년, C. Aquila에 의해 아시아 지역의 통치자였던 그의 아버지, 셀수스 폴레마이아누스(Celsus Polemaeanus)를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이 도서관에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의 상단은 지혜, 운명, 지식을 상징하는 정결한 여성상들로 장식되어 있다. 셀수스의 무덤은 중앙 적소 아래 지하에 위치해있다. 도서관 터에 남겨져 있는 비문에 의하면 도서관을 지으라고 명한 C.Aquila는 이 건축물이 완성하기 전에 숨을 거두었고 이에 그의 후계자에 의해 건축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Aquila는 도서관에 소장될 서적 구입비로 2만5천 디나르를 남겨두었다고 알려져 있다.

- 더불어 에페소는 사도바울이 서기 53년부터 이곳에서 2년간 전도활동을 하며 강론을 펼쳤다는 사실로도 유명하다. 사도바울의 방문 이후, 이곳에는 교회가 부흥하였고,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사도바울이 로마에 투옥돼 에페소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바로 '에베소서'이다.

□ 주요 기관 방문 내용

1. 앙카라 시청

- □ 방문일시 : 2011. 2. 21.(월) 14:20~15:40
- □ 방문내용 : 간부회의장 → 구내식당 → 민원실 → 부서 사무실→ 부시장실
- □ 방문결과

○ 앙카라 시청사는 22층의 현대식 건물로 시청사를 방문 시 일반 주민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카드를 받아 경비원이 서 있는 적외선 출입문을 통과한 후 출입구에 카드를 인식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다.

○ 1층에 있는 간부회의실은 200석 규모에 1층은 한 방향으로 2층은 1층 중앙을 향하여 사방으로 의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책상에는 마이크가 부착되어 있으며 105명의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주민들이 2층에서 간부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23층 건물 중 1~13층이 통합민원실로 배치되었으며 1층 민원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카드를 인식한 후 입장할 수 있고 한쪽 길이가 30미터 정도 되는 정방형의 민원실에 1번부터 12번까지 번호와 함께 처리업무가 적혀있고 중앙에는 대기 민원인을 위한 의자가 있으며 자연채광으로 중앙을 비치고 건물 전체가 에너지 절약으로 조명을 꺼 다소 어두웠다.

○ 또한 1층에서 기초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고단위업무와 하층에서 처리되지 못한 업무를 처리하며 창구 앞에는 의자가 없어 민원인들이 서있으며 창구마다 업무명과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있고 근무직원의 책상과 칸막이가 민원인의 가슴높이에 있어 허리 아래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민원실과 대비가 됐다.

○ 2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짝·홀수로 각각 1대씩 있어 불편해 보였으며 엘리베이터 내부가 안쪽으로 길어 많은 사람이 들어 갈 수 있었다.

○ 부서는 건물의 외벽 쪽으로 배치하여 창밖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책상은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서 여유로워 보였으나 부서장의 책상이 부서 끝 쪽 가운데 배치하여 모든 직원들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부서와 각 복도 및 민원실마다 CCTV를 설치하였으며 개인의 인권과 민원인을 위한 배려보다는 국가의 존재와 권력이 우선시되는 느낌이었다.

○ 앙카라 시청은 신청사와 함께 구청사가 있으며 신청사는 주로 대민업무를 처리하고 시장 밑에 파트별 부시장이 있었으며 우리가 방문한 부시장은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부시장(아흐멧 리젭 택잔)으로 시장의 현황설명과 환영사에 이어 의장이 답사를 하였으며 한국의 전통 탈과 전통 매듭 및 자수고리를 방문선물로 증정하였으며 앙카라 역사를 기록한 책을 선물로 받았다.

□ 기관현황

1. 약사

○ 앙카라 및 주변지역은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인구가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히타히트인, 프리기아인, 리디아인들이 앙카라를 거쳐갔으며 앙카라라는 지명은 켈트족의 한 부류였던 갈라트인들이 Ankyra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었음

○ BC 25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갈라티아 왕국을 병합하면서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었음

○ AD 7세기와 8세기 경, 이슬람의 전파와 함께, 앙카라는 페르시아인, 아랍인들이 정복하였음

○ 1127년 터키인들이 앙카라를 완전히 정복한 다음 Enguriye라고 하였음

○ 1402년 몽골의 침입으로 잠시동안 앙카라를 빼앗겼으나 이후 1414년 오스만제국이 앙카라를 정복함

○ 1차대전 이후 해방전쟁 당시 1920년 앙카라는 해방전쟁의 중심이 되었으며 1923년 아타튀르크가 수도로 공표함

2\. 일반개황

○ 면 적 : 39,715㎢ / ○ 인 구 : 376만명 / ○ 해 발 : 850m

3\. 시정개황

○ 시 장 : 민선, 임기 5년 / 시장 : Melih Gokcek

○ 시의회 : 민선, 임기 5년 10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

○ 주지사 : 내무부장관 임명 / 주지사 : Kemal Onal

4\. 앙카라 명소

○ 아타튀르크 기념관 : 터키의 국부 아타튀르크 시신 안장

○ 아나톨리안 문명박물관 / 한국공원

◆ 앙카라 부시장과 선물증정

◆ 앙카라 부시장의 앙카라시 현황 설명

◆ 앙카라 시청 간부회의장

◆ 앙카라 시청 민원실과 부서 사무실

◆ 앙카라 시청 방문

◆ 터키 초대 국회 방문

2. 카파도키아 노인요양시설(Hacibektas Rifat Kartal Huzur Evi)

□ 방문일시 : 2011. 2. 22(화) 15:00~16:30

□ 방문내용 : 식당 → 방 → 기도실 → 응접실 → 야외학습장 및 공원

□ 방문결과

○ 카파도키아 중심부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시립노인요양원(Hacibektas Rifat Kartal Huzur Evi)은 비교적 한적하고 아담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 2층으로 된 건물에 1층에는 응접실과 식당, 기도실, 방이 있고 2층에는 방과 화장실만 있으며 정전을 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갖추고 만일에 대비하여 건물외부로의 비상탈출구를 만들어 놓고 건물 뒤쪽으로는 양지바른 곳에 빵을 굽는 화덕과 여러 가지 농기구, 농촌생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기구와 소품들을 전시하였으며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 노인들이 산책과 소일거리를 하도록 하고 닭과 같은 가축도 키우고 있었다.

○ 카파도키아의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양로원과 여성보호원, 고아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국립과 시립을 합하여 총 286개의 시설이 있지만 국고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 노인요양시설은 2001년 8월 1일에 개관하여 국비보조를 받는 시설로 28개의 방에 1인실과 2인실에 40여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1인실은 30만원, 2인실은 20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필요하며 연간 4억원의 예산으로 오븐을 이용한 빵 만들기, 농사짓기 등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 정신질환자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노인을 제외한 만60세 이상의 거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요양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았으나 질병이 있거나 사망의 징후가 있으면 퇴실 또는 귀가시킨다.

○ 남녀 공용 시설로 1층은 여성, 2층은 남성이 이용하고 방에는 침대에 깨끗하게 정돈된 침구와 한쪽 구석에 옷장이 있었으며 뜨개질을 하거나 응접실에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자 사람이 그리운지 먼저 악수를 청하고 자꾸 말을 걸어온다.

○ 원장의 현황설명에 이어 직원들을 소개하고 연수단의 방문선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든 노인들에게 보여주며 기념촬영을 부탁하고 꽃이 핀 정원과 빵을 굽는 화덕과 농사를 짓는 밭을 보여주며 요양원의 사업들을 설명했다.

○ 터키 정부에서는 연간 예산에 맞춰 저소득층을 위해 매달 보조금과 교육비, 난방비, 의료비와 함께 음식과 옷을 시청을 통해 지급하고 있지만 책정기준에 따라 소외계층이 다수 존재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 카파도키아 노인요양원 방문

◆ 노인요양원 응접실에서 기념촬영

◆ 정원의 농기구 체험

◆ 노인요양원 원장에게 선물증정

◆ 정원의 농기구 체험

3. 이스탄불시 폐기물처리업체(Istac)

□ 방문일시 : 2011. 2. 27.(일) 09:40~10:50

□ 방문내용 : 현장 → 프리젠테이션 → 에너지관리센터 → 매립장방문

□ 방문결과

○ 1993년 쓰레기 매립지의 폭발로 터키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폐기물 수거 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쓰레기 수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이스탄불시의 폐기물처리업체는 총8개 회사로 유럽 사이드에 6개 아시아 사이드에 2개의 처리시설이 있으며 유럽 쪽에서 9톤, 아시아 쪽에서 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데 우리가 방문한 폐기물처리업체(Istac)는 이스탄불시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거리의 숲속에 있었는데 100여명의 직원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한다.

○ Istac은 산업폐기물과 의약품, 상업용과 생활쓰레기까지 모두 수거하여 일괄 처리하는 업체로 도로에서 산림이 우거진 숲속을 한참이나 지나자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풍겨져 나온다.

○ 전체 39헥타르의 끝도 없이 넓은 폐기물 매립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갈매기 떼들이 폐기물의 찌꺼기를 쪼아 먹기 위해 난무하고 있었으며 군데군데 쓰레기매립이 완료되어 황토로 덮어 놓은 언덕위에 갈매기 떼가 예전의 추억을 더듬어 앉아있었다.

○ 시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이곳으로 운반하여 전자인식기를 통과하면 무게와 쓰레기의 종류, 수거된 지역 등이 자동으로 체크되며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린 후 세차를 거쳐 다시 쓰레기 수거 지역으로 이동한다.

○ 하역된 쓰레기는 굴삭기와 불도저 등에 의해 상반부부터 쓰레기를 압축하고 30cm의 흙을 덮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쌓아 올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수분의 양을 체크하여 평탄작업을 실시하고 최후에 흙을 덮고 잔디를 식재하여 마무리한다.

○ 터키는 유럽의 쓰레기 처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매립지 지반을 조성할 때 약간의 경사면에 60cm 콘크리트 바닥을 타설한 다음 특수 비닐막을 입히고 50m의 가스관을 세우고 반입된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매립지 주변으로 침출수 수집관을 매설하고 악취방지시설을 만들어 수거된 쓰레기를 쌓아올리게 된다.

○ 터키 쓰레기의 6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침출수가 많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침출수를 수집하여 걸러내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여러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나오는 물은 폐기물 상층부에 식재한 잔디밭과 청소용 차량 세차에 사용하고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는 에너지 전환과정을 통해 이스탄불 2만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이 된다.

○ 그리고 산업용 쓰레기와 병의원에서 나오는 의약품 등 특수지정폐기물은 발생 장소에서 분리하여 수거하는 자체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고온에서 소각처리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두 매립하고 있다.

○ 어느 곳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NIMBY) 현상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민원은 당연히 생기지만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 악성 민원보다는 보상을 요구하는 단발성 민원이 발생하며 이때는 이스탄불시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 이스탄불을 비롯한 터키의 대부분의 도시와 농촌의 쓰레기는 드넓은 영토와 방대한 미개척지가 많아 소각이 전무하고 모두 매립에 의한 방법으로 처

리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한적한 곳에 쓰레기 하치장을 지정하여 버려둔 곳이 많다.

◆ 이스탄불시 폐기물처리업체 방문	◆ 현황 브리핑과 질의 및 답변
◆ 이스탁 회사관계자에게 선물증정	◆ 에너지관리센터 방문 현황청취
◆ 이스탁의 폐기물처리시스템 현황도	◆ 침출수 정화장치 시설 공장

4. 터키의 이모저모

□ 터키 국민은 국기를 매우 사랑한다. 관공서 뿐 만 아니라 일반 건물과 인터체인지 관광지에도 꼭 걸려 있는 국기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 만16세가 되면 주민증이 발급되고 주민증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출신지와 종교, 결혼의 유무 등이 적혀있다.

□ 터키는 이슬람국가이다. 99%가 이슬람을 신봉하는 나라이다. 매일 5번의 기도를 올리고 헤잡을 씌워 얼굴을 가린다. 전국에 회교사원이 3만개가 있으며 어디를 가든 모스크의 상징인 뾰족한 첨탑과 마주한다.

□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소고기도 참으로 귀하다. 다진 양고기를 먹고 이슬람 율법에 따라 죽은 짐승은 먹지 않으며 신에게 허락을 받고 짐승을 죽인다.

□ 도시가스 시설이 없어 집집마다 석탄을 피워 석탄가스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이렇게 발생된 가스가 도시에 낮게 깔려있으며 집집마다 태양광 집진판과 전기 변환장치를 지붕에 설치하여 에너지로 이용하고 있다.

□ 애연가였던 터키의 국부 아타튀르크 대통령의 영향으로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워도 괜찮고, 일찍부터 여성의 참정권과 선거권이 주어져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어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다.

□ 대부분의 지반이 석회암과 사암으로 형성되어있고 잦은 지진으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지형을 그대로 살린 체 3~7층의 성냥갑 같은 사각형 연립주택이 늘어서 있고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 석회암 지질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나무가 별로 없는 도시, 땅만 파면 무너져 지하철을 건설할 수 없고 고대유물이 쏟아져 개발이 어렵다.

□ 어느 도시처럼 이스탄불도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도로와 시내 도로는 교통정체가 심각하다. 도로의 동선은 원활하나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된다. 구릉과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 건축했기에 언덕도 많고 골목도 많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유난히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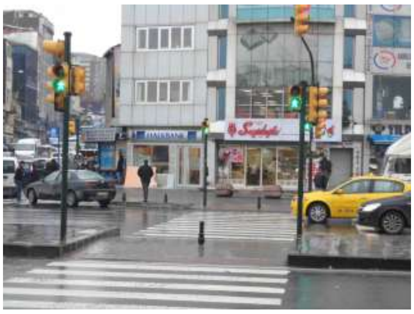
□ 지상에 설치한 전선을 따라 3~4칸짜리 전차가 달리고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2~3칸짜리 구간 시내버스가 다닌다. 교차로의 신호등 구조물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눈에 확 들어온다. 게다가 횡단보도 신호에는 숫자가 감소되며 녹색등이 점멸되는 우리와 닮았다

□ 동네 어귀와 공원에는 나무도 심고 조립식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어 놓았으며 축구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나라답게 인조잔디구장에서 뛰노는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꾸며놓은 천연잔디구장에는 사람이 없다.

□ 터키는 관광문화가 발달한 나라다. 1년에 3,000만명의 외국인이 다녀가고 관관수입이 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대국이다.

□ 땅이 넓어 그런가? 사자에 대한 풍습인가? 화장장이 없으며 수목장도 없이 100% 매장하고 도시 곳곳에 공동묘지가 주택가와 바로 인접해 있어 삶과 죽음이 하나다.

◆ 한국공원 참배 묵념	◆ 터키 초대 국회 방문	◆ 앙카라 시청 앞 볼라드

◆ 민원실 업무와 담당자 사진	◆ 조립식 어린이 놀이터	◆ 관광지의 유료화장실
◆ 끝없는 농경지와 구릉지	◆ 터키의 채소와 과일	◆ 공용주차장 시스템
		
◆ 신호등 구조물의 노란색	◆ 지상으로 다니는 3칸 전차	◆ 그랜드바자르의 접시와 찻잔
◆ 언덕길의 돌 포장과 디자인	◆ 거리에 모아둔 쓰레기통	◆ 전차 출입구

제4장 연수후기 및 소감

□ 지구촌과 세계화라는 말에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 의한 소통의 문화가 잠재되어 있다. '소통'이 서로를 이해하고 앎의 의미라면 이번 연수는 우물을 벗어나 이해와 앎의 진지함을 찾아 해외 연수국으로 인기가 많은 터키의 정치·경제, 역사와 문화 등 다방면의 분야를 우리 지방자치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

□ 한정된 일정과 언어소통의 부족으로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연수가 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 터키의 지방자치제도와 관광문화정책, 도시구조와 주택, 폐기물 수거처리,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 체험과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 향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여긴다.

□ 지리적으로 터키는 북위 35~42° 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와 다다넬즈 해협에 의하여 상업과 업무중심의 유럽 트레이스 반도와 주거 중심 아시아 사이드의 아나톨리아반도로 구분되어 발달하였다.

□ 터키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 9개가 있으며 히타이트 유적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 로마, 비잔틴, 셀주크 및 오스만제국 등 동서양 문명의 유적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고 이슬람과 기독교, 옛 것과 새로움 등 상반성이 갖는 모호함과 공존의 가치가 지중해성 기후와 더불어 관광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시스템과 역할 분담, 적극적인 관광지 개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 시행(관광가이드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제고),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의 리조트 개발과 유럽지역에 비해 저렴한 관광비용 등으로 2009년 2,700만명, 2010년 3,000만명이 찾는 관광대국으로 GDP 20%가 관광수입이다.

▢ 터키 국기는 붉은색 바탕에 흰색의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다. 붉은색은 터키 독립을 위해 흘린 희생의 피를 상징하고 초승달과 별은 회교의 상징이다. 공공기관과 인터체인지, 여기저기 비교적 많은 곳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터키국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는데 터키인들의 나라 사랑과 국기에 대한 유별난 애정을 대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경일에 내걸린 국기가 도로가 가로등 전주에 한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터키는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고 위계질서와 가족의 유대를 중요시하며 개인이나 국가의 명예를 중시하는 민족으로 한국전쟁 당시 16개 참전국 중 미국과 영국에 이어 가장 먼저 도움을 준 나라로 터키의 앙카라 시청 앞 사거리에 위치한 한국공원에는 721명의 전사자 명단이 새겨져있다. 터키인들은 피를 흘린 형제의 나라로 한국인을 '코렐리' 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반갑게 환영한다.

▢ 날이 밝아오는 어스름 녘에 단잠을 깨우는 이슬람의 기도소리가 회교사원의 스피커를 통해 나올 즘에도 거리는 휭하고 텅 비어있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이 국민소득 8,500불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10%를 넘어도 얼굴에 수줍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이유가 아닐까?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지 않고 연필을 깎아 놓은 듯 한 우뚝하게 솟은 첨탑은 전국에 3만개에 이르고 국민의 99%가 회교를 믿는다.

▢ 터키 어디를 가든 왠지 낯설지 않은 초상화와 마주한다. 이름하여 '케말 아타튀르크' 터키 초대 대통령이다. 이름에서 '아타' 는 아버지, '튀르크' 는 터키의 애칭으로 '터키의 아버지' 란 뜻으로 터키의 국부로 추앙받는다. 오로지 터키를 위해 살았기에 대통령의 신분에 이혼을 당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지나친 흡연과 음주로 인한 간암으로 생을 마감한다. 터키의 독립을 쟁취하여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문자를 제정하고, 남녀평등을 주창하는 등 수 많은 업적을 남겨 오늘날의 터키가 존재하는 기초를 다진 대통령이다.

□ 1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자급자족이 가능하여 유럽지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터키는 농업 국가답게 광활한 대지와 끝없이 펼쳐진 녹색의 들판과 구릉지에 밀과 감자 등을 심는다. 그러나 농한기라서 농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간혹 양떼를 모는 양치기가 멀리 구름아래 설산이 하얀 눈빛을 쏟아내는 배경을 뒤로하고 긴 막대를 들고 조랑말을 이끌며 느릿느릿 들판을 걸어가고 있다.

□ 터키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0.7%, 2009년 -4.7%의 경제성장률로 큰 타격을 입었으나 2009년 4/4분기에는 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정부의 채무누적, 경상수지 적자가 과도한 외채부담을 안고 있는 터키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국가재정 유지, 대외무역수지개선, 구조조정의 적극추진, 고 실업률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이 추진되어야하며 10%가 넘는 실업률 또한 터키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터키는 제도적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자국인 가이드를 동행하지 않은 관광은 할 수 없도록 법령화 했으며 관광지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경비원과 골목마다 순찰을 맡은 사람들이 무료하게 서 있고 휴게소와 관광지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여 사람이 근무하는 것을 보면 고용창출을 위하여 애쓴 흔적을 볼 수 있다.

□ 우리는 깜짝 놀랐다. 터키의 유류 값이 너무 높았던 것이다. 휘발유 1ℓ당 3,400원 정도! 화석연료의 유한성을 감안하여 석유자원을 보유하고도 채굴하지 않고 오히려 유류소비절약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유류비가 비싼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과 환경은 후세에게 빌려쓴 것이다.' 는 격언이 떠올랐다. 그리고 도로상을 운행하는 승용차가 거의 소형차인 것에 또한 놀랐다. 실용성 소비재로 인식된 차량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면서 부의 척도 나아가 과시욕의 산물로 오인된 우리나라의 실태를 생각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소비행태가 부끄러웠다.

▢ 터키의 행정조직은 크게 주(81개) - 군(695개) - 면(35,855개)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지사와 군수 및 면장은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터키의 지방행정 체제는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주민의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고 인구 2천명 이상이 되는 시는 1,984개가 있는데 각 시에는 주민이 선출한 시의회가 있고 시의회의장이 민선시장이 되는 기관통합형과 분리형의 장점을 지향한 기관혼합형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제5장 연수총평

□ 우리 연수단은 그동안 임시회와 정례회, 현장 확인 등 여러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연수일정을 미루어 오다가 금번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7박9일간의 일정으로 지중해 연안 터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견문을 넓혀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고 자기계발의 계기를 마련하며 의원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공무 국외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다.

□ 국외연수를 계획하면서 사전 국외연수의 장소와 일정, 참석범위, 방문기관 등에 대하여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의장단의 회의와 토론, 의원 설문을 통해 국외연수의 개략적인 계획과 방향의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 이번 국외연수가 충실하고 연수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연수가 되기 위하여 사전 국외연수의 방문기관과 시설에 대한 정보탐색과 방문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연수의 효과를 높였으며

□ 또한 국외연수를 통해 의원 상호간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 담아 듣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며 의원 모두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하나라도 배우고자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에서 연수의 의미를 깨달았다.

□ 연수기간은 9일이지만 인천공항에서 터키까지 11시간이 소요되어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하니 오후 18시경이고, 귀국하는 27일 터키를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니 날짜를 넘겨 28일 12시인 관계로 사실상 7일간의 일정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넓은 현장방문 등을 하기에는 다소 짧은 일정이었다.

□ 이번 국외연수는 터키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대유적과 이슬람에 대한 견문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인 기관방문과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수거처리실태에 대한 비교시찰 등을 통한 정보획득과 자기계발의 실질적인 현지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의 체험위주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시차적

응과 다소 많은 일정으로 피로해진 감도 있었으며, 현지 방문 시 많은 이동시간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강행군해야 하는 일정 속에서도 큰 사고없이 연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 중요 연수기관과 시설 및 문화유적을 살펴보면 앙카라의 한국공원, 터키의 수도 앙카라 시청, 아타튀르크 기념관, 터키 초대 국회의사당, 노인요양시설,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인 성소피아 사원과 이슬람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블루모스크, 이스탄불 전통시장 그랜드바자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경계를 이루는 보스포러스 해협,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암굴괴석의 카파도키아, 온천휴양지로 목화성이라 불리는 파묵깔레, 이오니아의 고대도시 에페소, 폐기물처리업체 Istac, 돌마바흐체궁전과 마르마라해 수산물 경매시장 등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질감 있는 새로운 문명의 접촉은 창의력과 혁신적인 사고를 깨치고 자기계발의 단초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 우리와 다른 정치제도와 민원처리 시스템 및 교통체계, 공원의 조성, 주택과 도시구조물의 배치, 무질서한 간판의 디자인, 폐기물 수거처리방법,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부지불식간에 뇌를 자극하고 정보를 비교하는 과정속에서 자기계발이 이루어지고 더욱 성숙된 자아로 거듭난다 하겠다.

▢ 앙카라 시청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연채광과 전등소등 및 간부회의장의 주민공개, 부서 직원과 과장, 국장 간 칸막이가 없이 자유롭게 개방된 분위기의 사무실을 보면서 청렴평가 6년 연속인 우리 구의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웠다.

▢ 카파도키아의 노인요양원은 노인들이 스스로 빵을 굽고 농촌생활을 계속 경험하고 기억력과 근력을 유지하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원에 농촌의 풍경과 기구 등을 갖추었으며 요양원에 종사하는 직원이 1.6명의 노인을 담당함으로써 섬세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운영할 수 있었다.

▢ 터키의 드넓은 영토 덕분인가 이스탄불의 폐기물 처리업체는 도시외각의 숲속에 위치하여 민원발생을 피하고 모든 폐기물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종합처리장으로 집중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였다.

▢ 국가와 국기를 사랑하고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를 국부로 추앙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조국 사랑이 남다른 터키 국민들을 보면서 남북이 대치한 우리나라의 상황이 형제나라 터키의 국민성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 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공원을 먼저 조성하여 나무와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공원 곳곳에 꼭 조립식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였으며, 교통신호등의 구조물 색이 황토색으로 눈에 잘 띄었으며, 도로상 횡단보도를 보도 높이와 맞추어 과속방지턱 역할과 함께 휠체어와 구루마도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

▢ 터키의 교통체계는 지상전차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구간버스, 그리고 석회암과 사암이 많은 토질 때문에 구릉의 지형을 살린 체 마을 곳곳을 누비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의 연계체계는 원활하나 표지판과 노선표시 등이 내국인 위주로 되어있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했다.

▢ 또한 경사면의 도로는 돌로 포장하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 내리도록 했으며 내구성도 양호하고 바닥의 디자인과 회색빛 돌이 주변 경관을 살려 보기에도 멋과 운치가 있어 좋았다.

▢ 화장실은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얼굴과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터키의 화장실은 관리인이 상주하여 돈을 받는 유료시설이 많아 깨끗하였으며 세면대와 종이 타올은 감응식 센서가 부착되어 필요한 양 만큼만 나오도록 하여 절약하고 위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 이번 국외연수는 어느 국외연수보다 많은 기관과 시설의 실질적인 방문으로 하나라도 배우고자 하는 의원들의 높은 열의와 모범적이며 충실한

연수과정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방문기관과 시설 마다 한국 고유의 탈과 전통 매듭, 자수 고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선물 증정을 통해 한국을 이롭게 알리는 연수가 되었다.

□ 그러나 사전 더 많은 정보와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지역 현안과 알고 싶은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모임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깊이 있고 다방면의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비교 검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과 함께 아쉬움이 남는다.

□ 너무 바쁘고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생각하고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없었으며 연수과정 중 견문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나누고 소감을 피력하는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지 못하여 아쉬웠으며 시차적응과 장거리 버스운행은 연수효과를 감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미리 준비하지 않고 떠나는 연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교육, 여행안내책자, 인터넷 탐색, 여행사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문화, 역사 등을 충분히 알고 가기를 권하고 싶다.

□ 끝으로, 우리 연수단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자주보고 견문을 넓혀서 세계화시대에 지역발전을 이끌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우리 지역의 경쟁력과 선진화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앙카라시에서 우리 연수단에게 선물한 ‘Once Upon A Time ANKARA'에서 터키인들은 옛 선조들의 찬란했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 터키를 연수하면서 터키인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번 연수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제6장 발전을 위한 제안

□ 지방의원의 국외연수가 사전에 충분한 계획없이 여행사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해외연수결과가 지방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지방의원의 국외연수가 관광성 외유로 인식되고 국외연수 무용론까지 거론된다.

□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국제적인 감각을 배양하고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이나 시책결정 등 행정과정에 유용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선진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지방의원의 국외연수가 연수목적과 취지에 걸맞은 효과를 거두고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하여 우리 연수단이 이번 연수를 계기로 느낀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외연수는 계획단계부터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 국외연수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여 지역사회의 실정과 현안에 맞는 대안을 찾는 목적의 연수가 되도록 계획한다.

□ 해당분야 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한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다.

□ 국외연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사전 정보교류를 통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2. 연수인원의 구성은 연수목적에 부합하고 연수일정을 고려한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와의 공동구성이 필요하다.

□ 국외연수 인원구성이 의회와 구청 관련 업무담당자,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연수를 계획한다.

□ 국외연수 인원은 예산과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연수단을 구성하되 연수단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3. 국외연수 이후 해당 성과에 대한 '연수보고서' 작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개한다.

□ 연수과정에서 수집된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정책입안이나 시책 결정 등에 반영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한다.

□ 국외연수 이후 그 성과와 우수사례를 언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연수의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한다.